

#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사회적지지, 정부신뢰,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김성래(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형수(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 목 차 >

I. 서론	III. 실증연구
II. 이론적 배경 및 자원의 구성	3-1. 연구모형과 가설
2-1. 사회적지지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2. 정부신뢰	3-3. 실증분석
2-3.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 요약 >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가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을 하는데 있어 사회적지지, 정부신뢰,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 교육 수강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자 등 사회적기업 창업 관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의 하부요인 중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는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의 하부요인 중 일관성, 공정성은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의 하부요인 중 창업의도, 기회발견은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로 첫째,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사업 설계 시 창업자에 대한 심리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사무공간 등 물질적 지원이 긍정적이다. 팀워크 훈련, 협업 경험 제공 등을 제공하여 조직력에 의한 경쟁력 확보로 생존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둘째, 정부와 사회적기업간 상호의존을 인정하고 신뢰자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서로에게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안정적 행정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관심자에 교육이나 지원사업 설계시 마인드 제고 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석·박사통합과정, neosean@gmail.com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songmook@dankook.ac.kr

· 논문투고일 : 2021-08-03. · 수정일 : 2021-09-02. · 게재확정일 :

로그래프와 함께 아이템 선정, 비즈니스 모델 등 창업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할 때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키워드 : 사회적기업, 창업행동, 정부신뢰, 사회적지지, 창업의도

## I. 서 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의 성장패턴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설명된다. 신생 독립국으로 압축성장을 유지해온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안정적인 고용 속의 성장이라는 경제 목표 달성은 현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구축에 일정의 이바지를 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1830년대 찰스 뒤뉴에르(Charles Dunoyer)의 ‘Treatise on Social economy’ 라는 책에서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도덕적 접근(moral economy)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박경하 외, 2014). 이후 1900년 전후 샤를 지드(Charles Gide)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촉발하는 사회적 위험이 존재하기에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 하였다. 그는 시장경제를 보다 사회적(social)이고 공평한(equitable) 경제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안적 경제체제로 사회적 경제를 상정하였다(Münkner & Kang, 2006). 이러한 담론은 각국의 필요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자리매김 되어졌다(신명호, 2009).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증가를 필두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현되었다. 그로 인해 생산적 복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정 기준에 의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간 기업,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김용태, 2021)

고용노동부의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해인 2007년 사회적기업은 55개소, 고용인원 2,539명에서 2017년 집계 1,877개소, 고용인원 41,417명으로 기업 수는 34배, 고용 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2017년 집계 결과로 2014년 12.0억 원, 2015년 13.5억 원, 2016년 15.8억 원, 2017년 19.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업당 평균 고용은 약 22명이며, 매출액 대비 고용은 1억 원당 2명이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 고용 5.4명과 매출액 대비 고용 1억 원당 0.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60% 수준이며, 평

균임금은 154만 원, 상용직 비율은 94.1%로 일자리의 안정성 또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정책성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선 5기 일부 지방정부들을 시작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목적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례를 제정하였다(채준원, 2014).

제도 초기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지적되어 졌다. 첫째, 제도 초기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단, 장애인 시설 등 복지영역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중심의 비즈니스모델을 탑재하여 인증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은 낮은 생산성과 경영능력 부진으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지적되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정책성고가 창출되는 것에는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직접인건비 지원사업의 대대적인 지원이 일시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개념적 정의는 사회문제 해결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제도 초기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목적 중 취약계층 일자리 중심으로 편중되었다는 의견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우려는 정부도 일부 인식을 같이하여 2009년부터 ‘소셜벤처 경연대회’,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등 신규 모델 발굴 정책들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2011년을 첫해로 국내 최초의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지향하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고 사업개발비, 멘토링,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사업으로 연간 1,000여 팀을 선발하고 있다. 2011~2018년 사이 약 3,400개 팀을 육성해 일자리 약 1만 1,000개를 창출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1,130개를 발굴했지만 창업 5년 후 창업기업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의 인재 유입이 거론된다(이미경, 2020).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와 인재 유입을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서 매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2회 실시하고 있고 연간 교육수료자는 약 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경기권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기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참여자는 약 300여 명이며, 이중 도내 시·군에서 진행된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수료자는 약 46%이다. 경기도 전체 교육수료자 중 창업 행동에 이르는 수료자는 약 7%에 해당한다.

사회적 경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창업 활성화는 주요 정책 과제 중 하

\* 사회적기업은 기 설립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증제도(사회적기업육성법, 법률 제11275호)로서 ‘사회적기업 창업’이라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소셜벤처 창업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어지나, 최근 소셜벤처의 정체성을 고유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에 용어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면서 인증을 목표로 하는 창업활동을 연구의 편의상 ‘사회적기업 창업’이라 하겠다.

나이다.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행동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어 일정한 이바지를 할 것이다.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활발히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뤄지는 영향요인으로는 기업가정신 및 역량(임아름 외2, 2014; 박재환 외1, 2014; 이무선 외1, 2016; 차성미 외6, 2019, 김수진 외1, 2020), 창업교육(서성열, 2018; 이현경, 2020; 정찬영, 2021, 이영휘, 2021), 창업정책(고석원, 2019), 사회적지지(김재호, 2013; 박경석, 2014; 임교순, 2017; 옥준우, 2019)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에서 다룰 영향요인으로는 첫째, 사회적지지로 한 사회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창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등이 개인의 창업선택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Carsrud, Gaglio & Olm, 1987). 사회적기업 창업선택 행위에서의 사회적지지의 역할도 그러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부신뢰로 한국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 창업보육, 성장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러한 정책들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사회적기업 창업선택 행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 창업의도로 사회적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활동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하기에 그 의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사회적지지와 창업가의 정부신뢰 수준,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창업 의도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자원의 구성

### 2.1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각된 자원이라고 정의 된다(최용성 외1, 2000). Maslow(1971)는 인간은 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욕구들은 관심, 사랑, 이해, 도움 등이라고 하였다(김재호, 2013). 또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서적 지원, 존중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존중감 지원, 의사소통 및 상호관계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관계적 지원 망(support network)이라 말한다(cobb, 1976).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정서나 행동에 유리한 결과를 갖도록 정보 조인, 구체적인 원조를 포괄한 개념으로 신체

적·정서적인 문제, 위기 등의 적응상의 문제, 사회적 분리, 독립 등으로 야기된 무력감의 문제 등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김재호, 2013).

최근 사회적지지가 기업 및 사회적 활동의 결과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움으로써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 의지를 강화하도록 돕는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다(김나미, 김신섭, 2013). 정신박(2013)은 부모나 친구로부터의 강한 사회적지지를 얻은 개인은 경제 활동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지지가 기업 활동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대용, 서장덕(2015)은 사회적지지를 기업가의 외적 활동 요인이라 주장하였고,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보에 있어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고, 박성희(2016)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기업가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본 확보 여부를 보고하면서, 정부 및 창업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도 있다. 사회적인 관계는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Eckenrode과 Gore, 1981).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어 지더라도 만약에 그 지지가 “지나치게 많거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Coyne, Wortman과 Lehman, 1988)가 그러하다. 이러한 연구는 긍정 영향의 연구 만큼이나 다양하다. (Buunk과 Hoorens, 1992; Kessler, McLeod과 Wethington, 1985; Lee, Netzer과 Coward, 1995; Schuster, Kessler과 Aseltine, 1990).

House(1981)는 사회적지지를 구성하는 하부요인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이다. 이는 사회적 지원의 구조적 차원 중의 하나로 간주되며, 그것은 창업자가 인지하는 동정, 관심 사항, 신뢰 등을 의미한다(House, 1981). 특히 정서적 지지는 자기존중, 신뢰, 관심, 경청을 포함하는 운영원리로 수행되기에 이러한 주변의 지지는 창업자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줄 것이다(House, 1981). 둘째, 물질적 지지(instrument support)이다. 이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혹은 금전이나 물건을 제공해주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창업자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주느냐에 관한 것이다(House, 1981). 셋째, 정보적 지지(information support)이다. 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이나 정보의 제공을 말한다(House, 1981). 특히, 정보적 지지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사업 방향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얻기 때문에 청년창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김재호, 2013). 마지막으로 평가적 지지(feedback support)이다. 이는 정보의 흐름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건설적인 피드백, 충고, 사회적 비교 등을 제공

하는 것,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일을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지지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들을 포함한다(House, 1981).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 정보와 물질 자원,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 사회적지지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사료되어 이를 실증 연구한다.

## 2.2 정부신뢰

신뢰(trust)는 심리학을 비롯하여 사회, 경제, 정치, 행정 등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고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관되고 통일된 개념 정의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Hosemer, 1995). Mayer(1995)는 신뢰의 수준과 상황에서 상호 연관성을 참작하여 신뢰의 주체가 신뢰 대상과 관련하여 인지한 위험도와 위험을 감수하려는 행위를 신뢰로 규정하고 능력, 선의, 정직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Zuker(1986)는 장구한 시간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가 생성되고 안정된 관계유지를 통해 신뢰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신뢰 대상에 대해 사회적 상관관계를 회피하는 경우 오히려 갈등과 경계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ewicki and Bunker(1996)는 신뢰를 계산, 지식, 일체감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단계별 경험이 누적되면서 상대방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계산적 신뢰가 지식적 기반의 신뢰로 강화되어 마지막으로 신뢰 대상과 동일시하는 일체감에 근거한 신뢰로 발전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신뢰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의도(intention), 믿음(belief), 행태(behavior), 기대(expectation) 등 이고, 신뢰의 속성으로는 호의(benevolent), 돌봄(caring), 걱정(concern), 능력(competence), 선의(goodwill), 정직(hones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등이 제시되고 있다(McKnight and Chervany, 1996). 사회적기업이 구축해야 하는 신뢰 대상으로는 수혜 대상, 고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있겠고,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며,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하는 절차로 창업행동을 선택하는데 있어 정부는 신뢰 대상으로서 유의미한 대상으로 사료된다.

정부신뢰는 특정 사회의 기본적 게임규칙에 대해 공유된 신뢰로 제도화된 질서를 정하는 것과 유관하며, 사회 내 제도와 규범, 나아가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기도 한다(박병진, 2004). 반면에 신뢰측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도 있다. 체제와 제도, 개인 간에는 비대칭적(asymmetric) 관계가 근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개인은 제도나 체제에 직접적으로 유관한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우며, 그들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

계방어권 행사에 대한 권한이나 영향력도 한정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특정 체제나 제도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기대, 즉 신임(confidence)일 뿐, 신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Coleman, 1990; Hardin,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탈리아 북부, 남부지역의 신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이 속한 지역과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이 개인과 사회의 신뢰수준과 신뢰문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연구(Putnam, 1993)나, 경제적 상황 요인과 정부신뢰의 관계를 규명(이시원, 1994)하거나 경제 약화의 책임을 어디에 부과하는가에 따라 정부신뢰에 차이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입증(김병규, 이근수, 2009)하기도 하였다. 반면 결과적으로 이와 대치되는 주장을 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정부 자체에 대한 믿음이나 체제, 제도 상 신뢰는 개인적 특성 또는 사회적 경험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 제도의 경험으로부터 창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많은 정보로 인해 정부를 더욱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연구(Kaase, 1990)나, 한국의 정치행정문화가 민주적 시민문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며 정치에 대한 참여수준이 높은 개체는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주장(장수찬, 2002)하는 연구가 그러하다.

지방정부신뢰는 일반적인 신뢰와 달리 구체성을 띠는 정부신뢰의 일부분이며, 지역 주민과 제반 구성원들이 그들이 주관적인 기대가치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대해 가지게 되는 긍정의 평가적 믿음이다(조보연, 2014).

지방정부신뢰를 포함하여 정부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나 공통으로 거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ability)이다. 신뢰는 신뢰 대상이 신뢰 주체가 부여한 역할 혹은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이 있는지 혹은 능력이 발휘되었는지로 형성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능력 및 성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신뢰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이준걸, 2012). 둘째, 일관성(consistency)이다. 일관성은 내용상으로 시공간적 측면에서 목표와 수단 사이의 조화와 우선순위의 명확화, 관련 활동들의 중복과 모순, 갈등의 최소화, 주어진 기간 동안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조보연, 2014).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직자들의 일관성 있는 행동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향후 과거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 행동 실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된다(이양수, 2008). 셋째, 공정성(fairness)이다. 이는 선행연구를 비롯해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도 신뢰형성에 매우 밀접한 작용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공정함은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등을 포함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의사소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경험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절차나 분배가 나타나는 경우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이제훈 외1, 2004). 넷째, 투명성(transparency)이다. 투명성은 사익의 극대화를 위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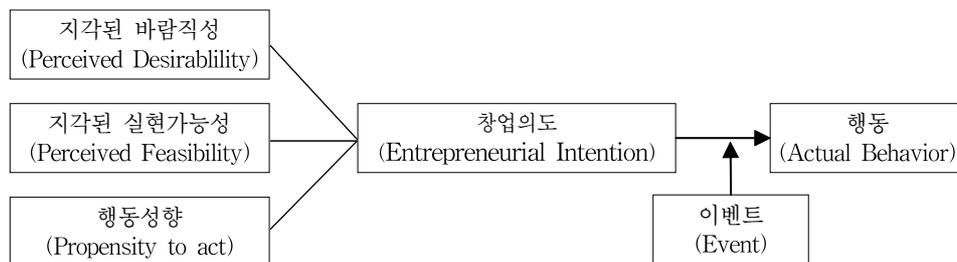
직의 유용하는 부정부패가 없음을 의미하며, 부정부패는 불신문화를 조장하는 큰 영향 요소이다. 즉, 정부의 윤리와 도덕성은 정부의 신뢰에 매우 직접적으로 긍정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장용진, 2013).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능력,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으로 구성된 정부신뢰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사료되어 이를 실증연구한다.

### 2.3.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며, 창업과정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창업 의지는 새로이 갖게 될 직업의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므로 창업 의도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지우, 2000). 창업 의도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서(Krueger, 1993), 창업 연구에서 개념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Krueger & Brazeal, 1994; Katz & Gartner, 1988; Krueger, 1993). 이에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의도 모델(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이 제시되었다. <그림 1>은 Shapero & Sokol(1982)에 의해 제시된 창업이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로 창업 분야에 있어 대표적인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다(Shapero, 1981). 이것은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 능력, 위험성, 상호작용, 관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로 보았다(Guerrero, Rialp & Urbano, 2008).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에 있어 지각된 바람직성, 지각된 실현가능성, 행동성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검증하였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 Audet & Overall, 2010).

<그림 1> 창업 의도 모델



출처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창업의도는 첫 번째, 지각된 바람직성에 따라 개인의 주관에 따른 창업의 동기 또는 의지로 간주한다. 즉, 창업에 성공하는데 조직적, 제도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 가치, 흥미 요인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Bird, 1988). 두 번째, 지각된 실현 가능성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 직접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나 자신의 창업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목표를 추구하는데 수반될 수 있는 동기를 의미한다(Carter, Gartner, Shaver & Gatewood, 2003). 세 번째, 행동성향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개인적인 성향으로 설명되며, 기회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성향으로 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동기가 창업의 의도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우주연, 2020)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또한 영리기업의 의도와 같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배귀희, 2011). 창업 의도에 따른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 의도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며, 사회적기업의 창업에 관한 연구는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Maurice, 2004; Sharia & Lerner, 2006). 수익과 공익 모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기업가적 개인특성, 기회를 활용하는 능력, 교육과 경험에 의한 내부동력, 환경적 요인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정치적 분위기, 금전 및 비금전적 자원획득의 가능성, 정치·문화·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외부동력이 작용한다고 제시 되어졌다(Brook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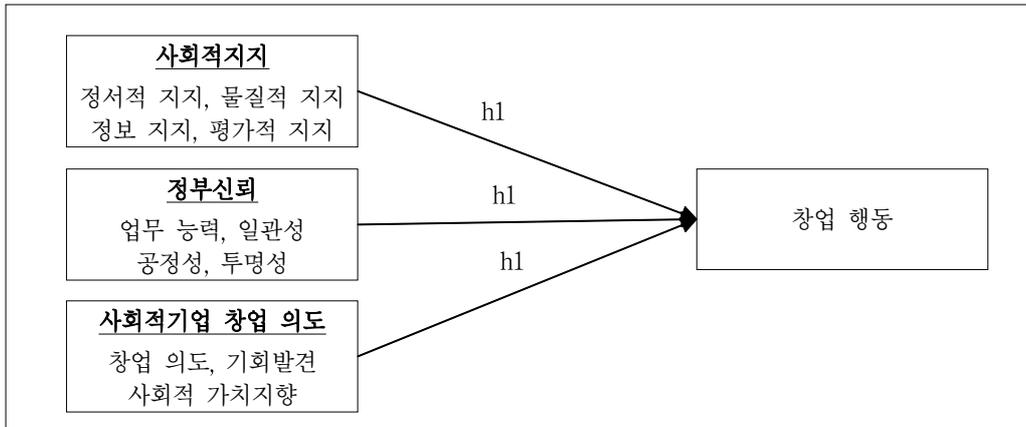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의 하위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창업 의도 모델의 요인인 지각된 바람직성, 지각된 실현가능성, 행동성향을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하위요인으로 적용하고 각각 창업의도, 기회발견, 사회적가치 지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증연구한다.

### III. 실증연구

####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장에서는 제 II 장에서 제시한 관련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회적지지, 정부신뢰,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가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분석의 틀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가 창업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사회적지지, 정부신뢰, 창업 의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1-1. 정서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1-2. 물질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1-3. 정보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1-4. 평가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2.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2-1. 정부의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2-2. 정부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2-3.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2-4.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3.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3-1. 창업 의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3-2. 기회발견 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가설3-3. 사회적 가치 지향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를 것이다.

###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모형에서 잠재변수는 사회적지지, 정부신뢰,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 창업 행동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사회적지지의 측정변수는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 지지, 평가적 지지로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신뢰의 측정변수로 업무 능력,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활동 범위가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상을 설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였다.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의 측정변수로는 창업 의도, 기회발견, 사회적 가치 지향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의 측정변수로는 기 창업 및 구체적인 창업 시기 계획 여부로 측정하였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수강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사회적기업 창업 관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 도구 조사대상자의 창업 행동 여부가 종속변수이며, 사회적지지, 정부신뢰,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를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표 1> 참조

<표 1> 설문지의 측정 문항과 근거

구분	요인	하위요인	문항 수	출처
종속변수	창업 행동	창업 여부	1	
독립변수	사회적지지	정서적 지지	8	김재호(2013) 임교순(2016)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부신뢰	업무능력	8	이준걸, 2012 조보연, 2014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창업의도	6	이지우(2000) 강숙자(2003) 임교순(2016)
기회발견				
사회적가치 지향				

### 3.3 실증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23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단순회기분석을 실행하였다.

### 3.3.1 설문 대상의 일반적 특성

실증조사를 위하여 활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 입주팀 등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88명을 바탕으로 성별, 나이, 최종학력, 직업, 사회경력, 사회적 경제 창업 관련 교육 수강 여부 마지막으로 창업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점에 대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빈도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성별 구성비는 여자 54명(61.4%), 나이는 30대가(34.1%), 최종학력은 대졸 46명(52.3%), 현재 직업은 회사원이 36명(40.9%), 사회경력은 10년 이상이 44명(50%),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정도는 잘 알고 있음이 49명(55.7%) 순이었고, 마지막으로 창업에 있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점으로는 아이템 선정이 34명(39.1%), 자금이 31명(35.6%) 등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다음 <표 2>에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범주	구분	N	%
성별	남	34	38.6
	여	54	61.4
연령대	20대	9	10.2
	30대	30	34.1
	40대	20	22.7
	50대	20	22.7
	60대 이상	9	10.2
최종학력	고졸 이하	6	6.8
	전문대졸(재학 포함)	15	17
	대졸(재학 포함)	46	52.3
	대학원졸(재학포함)	21	23.9
현재직업	공무원	1	1.1
	생산직	1	1.1
	자영업(기업가)	27	30.7
	주부	7	8
	학생	3	3.4
	회사원	36	40.9
	기타	13	14.8

사회경력	1년 미만	6	6.8
	1년 이상 ~ 3년 미만	8	9.1
	3년 이상 ~ 5년 미만	12	13.6
	5년 이상 ~ 10년 미만	18	20.5
	10년 이상	44	50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잘 알고 있음.	49	55.7
	대략적으로 알고있음	36	40.9
	모른다.	3	3.4
창업 결심에 장애 요인	아이템 선정	35	39.8
	용기	5	5.7
	자금	31	35.2
	정보부족	12	13.6
	정부(정책)불안	2	2.3
	주변지지	3	3.4

### 3.3.2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 측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 성분행렬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방식으로 회전하여 6회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을 변수별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변수 Cronbach  $\alpha$  값은 0.959이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3>와 같다.

<표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독립 변수	하위요인		요인분석				신뢰도 Cronbach $\alpha$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 (%)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b1_1	.549	.650	4.841	22.004	.933
		b1_2	.689	.756			
	물질적 지지	b2_1	.672	.796			
		b2_2	.682	.826			
	정보적 지지	b3_1	.692	.705			
		b3_2	.643	.530			
	평가적 지지	b4_1	.724	.623			
		b4_2	.823	.751			
정부신뢰	업무능력	c1_1	.669	.598	6.187	28.123	.932
		c1_2	.749	.688			
	일관성	c2_1	.807	.694			
		c2_2	.821	.747			
	공정성	c3_1	.736	.766			
		c3_2	.710	.765			

	투명성	c4_1	.717	.634			
		c4_2	.677	.625			
사회적 기업 창업의도	창업의도	d1_1	.619	.745	4.545	20.659	.909
		d1_2	.633	.821			
	기회발견	d2_1	.831	.783			
		d2_2	.823	.791			
	사회적가치 지향	d3_1	.797	.662			
		d3_2	.709	.617			

### 3.3.3 기술 통계량

연구대상의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창업 행동은 평균 3.034 점,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수인 정서적 지지는 평균 3.744점, 물질적 지지는 평균 3.688점, 정보적지지는 평균 3.784점, 평가적 지지는 평균 3.670점이다. 정부신뢰의 하위변수인 업무능력은 평균 2.938점, 일관성은 평균 2.938점, 공정성은 평균 3.017점, 투명성은 평균 2.926점이다.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의 하위변수인 창업의도는 평균 3.483점, 기회발견은 평균 3.483점, 사회적가치 지향은 평균 3.778점이다. 다음으로 변수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의 절댓값이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5 미만으로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표 4> 기술 통계량

개념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창업행동		88	3.034	1.6640	.021	-1.664
사회적지지	정서적 지지	88	3.744	.8577	-.253	-.737
	물질적 지지	88	3.688	.8176	.228	-1.032
	정보적 지지	88	3.784	.6981	-.403	-.033
	평가적 지지	88	3.670	.8301	.039	-.770
정부신뢰	업무능력	88	2.938	.9279	.143	-.690
	일관성	88	2.784	.8899	.255	-.485
	공정성	88	3.017	.9330	-.224	-1.150
	투명성	88	2.926	.7862	.323	-.519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창업의도	88	3.483	1.2258	-.194	-1.161
	기회발견	88	3.619	1.1890	-.920	-.033
	사회적 가치지향	88	3.778	.7461	-.856	2.037

### 3.3.4 상관분석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 간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분석결과표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상관분석

	1	2-1	2-2	2-3	2-4	3-1	3-2	3-3	3-4	4-1	4-2	4-3
1	1											
2-1	.763**	1										
2-2	.815**	.790**	1									
2-3	.645**	.593**	.746**	1								
2-4	.557**	.655**	.710**	.659**	1							
3-1	.660**	.568**	.694**	.485**	.585**	1						
3-2	.746**	.518**	.633**	.544**	.459**	.735**	1					
3-3	.858**	.641**	.730**	.632**	.542**	.718**	.769**	1				
3-4	.753**	.624**	.701**	.552**	.574**	.718**	.798**	.738**	1			
4-1	.871**	.652**	.711**	.590**	.500**	.583**	.666**	.772**	.667**	1		
4-2	.698**	.622**	.577**	.471**	.442**	.387**	.364**	.532**	.458**	.701**	1	
4-3	.594**	.544**	.498**	.453**	.410**	.374**	.330**	.546**	.383**	.602**	.678**	1

\* p<.05, \*\* p<.01 1. 창업 행동, 2-1 정서적 지지, 2-2 물질적지지, 2-3 정보적 지지, 2-4 평가적 지지, 3-1 업무 능력, 3-2 일관성, 3-3 공정성, 3-4 투명성, 4-1 창업 의도, 4-2 기회발견, 4-3 사회적 가치 지향

### 3.3.5 가설검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사회적지지, 정부신뢰,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였으며(F=65.48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90.5%로 나타났다(R<sup>2</sup>=.891). Durbin-Watson값은 1.522로 문제가 없었고, VIF값은 5.279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었다. 사회적 지지, 정부신뢰,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의 하부요인이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 사회적지지, 정부신뢰,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

변수		B	SE	β	t	p	F (R <sup>2</sup> )
(상수)		-3.005	.412		-7.294	.000	65.481 (.905)
사회적지 지	정서적 지지	.293	.124	.151	2.357	.021*	
	물질적 지지	.446	.166	.219	2.689	.009**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정부신뢰	정보적 지지	-.083	.141	-.035	-.584	.561
	평가적 지지	-.155	.114	-.077	-1.362	.177
	업무 능력	-.144	.114	-.080	-1.265	.210
	일관성	.283	.136	.151	2.084	.041*
	공정성	.518	.132	.291	3.919	.000***
	투명성	.104	.144	.049	.720	.474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	창업 의도	.363	.096	.267	3.789	.000***
	기회발견	.200	.082	.143	2.436	.017*
	사회적 가치 지향	-.012	.116	-.005	-.099	.921

\* p<.05, \*\* p<.01, \*\*\* p<.001

위 연구결과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지지(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와 정부신뢰(업무능력,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창업 의도, 기회발견, 사회적 가치지향)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지지의 하부요인인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 정부신뢰의 하부요인인 일관성과 공정성,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의 하부요인인 창업의도와 기회발견이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본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표 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7> 회귀분석에 따른 연구 결과

가설	가설내용	검증결과
1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1-1	정서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채택
1-2	물질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채택
1-3	정보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기각
1-4	평가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기각
2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2-1	정부의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기각
2-2	정부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채택
2-3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채택
2-4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기각
3	사회적기업 창업의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3-1	창업의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채택
3-2	기회발견 태도가 짝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채택
3-3	사회적가치 지향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이를 것이다.	기각

## IV. 결 론

최근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과 문화의 확산으로 국가의 위상이 향상되어 전례 없던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성장으로 인해 실업률 증가와 신도시-구도시간 지역갈등, 다문화사회화로의 문턱을 넘어선 시점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화적 갈등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음과 양이 동전의 앞뒤와 같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 육성정책을 매년 확대해 오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되어졌으며, 창업 의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창업팀이 창업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창업 의지, 창업 의도를 넘어 창업 행동에 이르는 영향요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이르는 영향요인 중 사회적지지, 정부신뢰,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를 독립변수로 설계하였다. 독립변수의 각각의 하부요인은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대립가설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 입주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회적지지와의 유의성 결과로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고 정보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기각되었다. 이는 창업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원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임지현, 2010)의 결과에 일부 부합한다. 이외 사회적지지가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유연호, 2008; 정신박, 2013; 박경석, 2014)와도 일부 부합하는 결과이다. 결과의 부분적 일치 이유로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적지지가 창업 행동에 부(-)의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연구(김성환, 2018)에 비추어 설문자 개인적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업자 개인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나 제3자의 정보와 평가는 창업행동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두 번째, 정부신뢰와의 유의성 결과로 정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는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업무 능력, 투명성에서는 영향의 유의성이 낮게 검증되었다. 이는 정부신뢰가 정책 참여 및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보라, 2008; 박경순, 2014)와 일부 일치한다. 인증제도를 따르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정부신뢰는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와와의 유의성 결과로 창업의도와 기회발견이라는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정(+)의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가치 지향 요인은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창업의도, 기회발견과 같은 창업지향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지향이 사회적기업 창업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서경준, 2015) 결과와 비교하여 사회적 가치 추구 요인은 상이한 결과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리커트 척도의 설문값은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의 세 가지 하부요인 중 사회적가치 지향이 가장 높은 긍정 값으로 나타난 점(창업 의도=3.483, 기회발견=3.619, 사회적 가치지향=3.778)으로 볼 때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집단의 윤리적 지향이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 창업 업종의 과반이 강사기반의 교육·서비스업과 생활 공예, 생활문화 위주의 문화예술 분야이고, 조직형태로는 5인 미만의 극소기업으로 창업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다. 창업가 개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창업 행동을 선택한다 볼 수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정책 수립이나, 교육 설계자는 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 창업가에게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무공간, 사업비 등 실질적 지원 역시 창업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더불어 팀워크 훈련, 협업의 경험으로 조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효과에 대해 기대를 가진다. 사회적기업 역시 정부에게 영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시장 보호와 성장지원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이러한 상호간의 기대들은 서로에게 긍정적 경험을 누적시키고,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가 강화되면서 신뢰자본이 작동되는 긍정적 효과로 발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리커트 5점 척도의 설문값의 평균치가 타변수에 비해 낮게(사회적지지=3.72, 정부신뢰=2.916,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3.627)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과의 영향 유의성과 별개로 설문대상자의 정부에 대한 심리적 신뢰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Lewick and Bunker(1996)의 주장처럼 신뢰 행동의 기대를 한 대상에게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오히려 갈등과 경계가 시작되거나 강화될 수 있기에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행동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과정상의 행위인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이라는 특성상 절차적(일관성, 공정성) 신뢰요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과적(투명성) 신뢰요소에 대해서는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 능력 역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행정전달체계에 서 전문인력, 전문성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 창업의도 고취를 위해 아이템 선정, 비즈니스 모델링과 같은 구체적인 창업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프로젝트가 의미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창업 결심 의 장애요인으로 아이템 선정이 가장 큰 장애로 집계된 결과와 부합된다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설문지 문항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지지의 하부요인의 문항 가족, 친지 및 동료 등과의 유대감을 묻는 문항, 사회적기업 창업 행동의 하부요인인 사회적 가치 지향의 문항 중 사회문제 해결 의지 등 도덕적, 윤리적 판단 요소가 결합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긍정 회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정부신뢰의 문항 역시 사실판단과 무관하게 설문응답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되었을 우려도 같이한다. 설문응답자 수를 충분히 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설문 응답 시 앞서 언급된 객관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설문 전 안내를 통해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석원(2019), “창업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교육과 정부 지원정책의 조절효과”
- 김재호(2013), “사회적 창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적 프로세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병규, 이곤수(2009)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한국정부학회」, 21(3), 893-915
- 김수진, 김종성(2020)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4(1), 180~208
- 김용태(2021), “소셜 벤처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5(2), 147-167
- 박경석(2014), “중국동포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박경하(2014), “고령자의 복지인식 및 복지수혜자 지위가 민간복지활동에 미치는 영향”
- 박병진(2004), “공적 신뢰의 조건: 공정성과 처벌의 엄격성” 「신뢰연구」, 14(1), 37-66.
- 배귀희(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99-227.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도시와 빈곤」, 89, 5-45.
- 서경준(2015), “예비창업가의 사회적지향성, 창업가정신, 시장지향성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 우주연(2021), “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 만족도가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 대한 연구”
- 이무선, 하규수(2016), “스타트업부동산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5), 129-139.
- 이미경(2020), “사회적기업가의 경영역량과 창업지원프로그램이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양수(2008),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0(2), 533-552.
- 이준결(2012), “능력, 호의성 및 개인주의-집합주의 자기표상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 임교순(2017), “사회적지지와 제도적지원이 초기창업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임아름 (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장수찬(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장용진(2013),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 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19(3), 189-214.  
정찬영(2012), “대학생과 시니어의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계획된 행동 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의 통합모델 중심으로”  
조보연(2014),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방정부신뢰와 지역 사회적 의식 간 영향 관계 연구”  
차성미, 안지훈, 오탉환, 윤미경, 김종열, 이문형, 이정표(2019), “소셜벤처와 기업가정신 교육참여동기가 교육성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8(2), 1-21.  
채준원, 김진건(2014), “예비창업가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사회적기업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연구」, 7(1), 67-90.

(2) 국외문헌

- Audet, C. T., & Everall, R. D.(2010), “Therapist self-disclosure and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 phenomenological study from the client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8(3) : 327-342.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 442-453.  
Buunk, B. P., Hoorens(1992), “V. Social support and stress: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exchange processes” ,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4) : 445-457.  
Carter, N. M., Gartner, W. B., Shaver, K. G., & Gatewood, E. J.(2003), “The career reasons of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 13-39.  
Coleman, J. S.,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Eckenrode, J(1981), “Stressful events and social support: The significance of context. In B. H. Gottlieb (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 43-68.  
Guerrero, M., Rialp, J., & Urbano, D.(2008), “The impact of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4(1) : 35-50.

- Hardin, R., Trust and Trustworthiness.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2002.
- Kaase, Max(1999),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2(3) : 1-21.
- Kessler, R. C., McLeod, J. D., Wethington(1985), "E. The Costs of Caring: A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Psychological Distres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 491-506.
- Krueger J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 91-104.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 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 411-432.
- Krueger, N.(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 5-21.
- Lewicki, Roy J., and B. B. Bunker, Developing and Maintaining Trustin Work Relationships in R. M. Kramer and T. R. Tyler.(eds), Trust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 Maslow, Abraham H.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1.
- Maurice, S., Lessons from the Equator Initiative: honey care Africa's beekeeping in rural Kenya.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2004.
- Mayer. R. C., James H. Davis, and F. D. Schoorman(1995), "An Interg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 709-734.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P, 1993.
- Sharir, M., & Lerner, M.(2006), "Gauging the success of social ventures initiated by individual social entrepreneurs" J urnal of World Business 41(1) : 6-20.

<ABSTRACT>

##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Startup Behavior of Prospective Start-ups of Social Enterprises : Social Support, Government Trust, and Social Enterprise Start-up Intentions

Seongrae Kim\*, Hyeongsu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government trust, and intention to start a social enterprise on the social enterprise startup behavior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To this end,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those interested in starting a social enterprise, such as those who took education on social enterprise startups and participants in the social entrepreneur fostering project, and verified through sim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enterprise startup behavior. Second, among the sub-factors of trust in the government, consistency and fairnes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enterprise start-up behavior. Third, among the sub-factors of the social enterprise startup intention, the startup intention and opportunity discovery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enterprise startup behavior.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when designing education and business incubating support projects for prospective social enterprise founders, psychological support for founders, business development expenses, and material support such as office space are positive. By providing teamwork training and collaboration experience, the policy effect will be maximized 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urvival by sec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organizational power. Second, it will be necessary for each other to acknowledge

---

\* First Author Dankook University, Master's and Ph.D. Integration Course, neosean@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t Dankook University, songmook@dankook.ac.kr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social enterprises and to develop into trustworthy capital.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stable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enterprise start-up behavior. Third, when providing specific methodologies for entrepreneurship such as item selection and business model along with a mind-raising program when designing education or support projects to those interested in social enterprises,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enterprise startup behavior.

Keywords : Social Enterprise, Start-up Behavior, Social Support, Government Trust, Start-up Intention